

도자회화에 담은 5·18 민주인사의 초상

오만철 작가, 광주서 첫 특별 기획전
홍남순기념사업 돕기... 11일까지 ACC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고 있는 오만철 작가 전시회에 가면 작품을 한참 동안 들여다 보게된다. 도자회화라는, 좀처럼 보기 힘든 독특한 장르를 만날 수 있어서다. 특히 다양한 모양의 도자기 등에 그림을 그려넣는 경우는 많지만 평평한 도자 도판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드물어 벽에 걸린 작품들은 멀리서 보면 보통의 회화 작품처럼 보인다.

오만철 작가 특별기획전이 오는 11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6관에서 열린다.

국립 출신으로 홍익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단국대 대학원 도예과를 졸업한 오 작가는 '화공과 도공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작가다. 홍남순기념사업회 주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오 작가가 달항아리, 풍경 등 기존 작품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들을 작업 소재로 삼았기 때문이다. 전시 주제 '5·18의 영혼-도자회화와 만나다' 인 이이다. 오 작가는 홍남순기념사업회를 돕기 위해 전시회를 준비했고, 광주에서 그의 작품이 전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오 작가는 흥분호사 모습을 여러점 선보인다. 환하게 웃고 있는 초상화를 비롯해 1968년 6·8부정선거 항의 선언문을 읽고 있는 모습 등은 시대의 고뇌를 그대로 담고 있다. 또 영혼결혼식으로 부부가 된



'5·18의 영혼-홍남순'



'세한삼우(松)'



'달항아리'

박기순·윤상원 열사의 작품도 눈에 띈다. 박기순은 교복을 입고 꽃을 든 옛날 모습으로, 윤상원 열사는 피리를 불고 있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표현됐다.

도자회화는 직접 구운 평평한 백자 도판에 그림을 그린 후 이를 5일 동안 1330℃ 고온의 가마에서 구워낸 작품으로 도예와 회화의 여러 기법이 결합돼 색다른 느낌을 준다. 도자기만이 갖고 있는 입체감과 함께 회화의 사실적인 묘사가 어우러진 결과다.

전시에서 눈에 띄는 건 다양한 풍경 작품이다. 문인화가들이 즐겨 그렸던 대나무, 매화, 소나무 등을 꾸준히 표현해온 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하

얀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대나무와 푸른 달빛이 쏟아지는 신비로운 죽녹원 풍경을 담아내고, 고고한 소나무와 눈이 어우러진 '세한삼우' 작품도 전시중이다. 또 봄과 겨울의 자작나무를 표현한 작품과 함께 세상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거대한 파도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한 '파도' 연작 시리즈도 인상적이다. 그밖에 '달항아리' 연작은 도자기의 매력을 그대로 살린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작가는 "흙의 점도와 성질과 두께에 따라, 선의 농담과 형태·색감의 농도에 따라, 가마 속 불의 화도나 요법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있기에 도자회화는 즐거운 작업"이라고 말한다.

오 작가는 해외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초대전에서 각광을 받았고 6월에는 45회 영국 전통 올림피아 앤드 엔틱페어에서 첫날 완판을 기록했다. 또 오는 21일까지 런던에서 초대전을 열고 있으며 2020년 2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아트플러스 갤러리 초대전도 예정돼 있다. 현재 세종조형연구소 및 중미갤러리 대표도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다독다독작은도서관 7일 '서(書)로다독콘서트'

다독다독작은도서관(관장 리종빈 광주벨엘교회 목사·이하 작은도서관)이 오는 7일 제1회 '서(書)로다독콘서트'를 개최한다.

지난해 글쓰기학교를 처음 운영해 수필집 '다독의 향기'를 출간하기도 했던 작은도서관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지난 한해 펼쳤던 다양한 독서문화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서구 상록도서관(관장 전영재)으로부터 글쓰기특화도서관으로 지정받아 2020년까지 자기 역사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신웅식 씨가 '왜 자기 역사를 쓰는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작은도서관은 2개의 독서동아리(다독다독, 책소리15)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1-2회 모여 함께 읽었던 책을 토대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밖에 '캘리그래피 & 그림책 강좌', '영어동화 읽기'도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한편 리종빈 도서관장은 "앞으로도 다독다독이 마을 공동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금봉미술관 '필묵 벗하다' 전



최옥순 작 '민화왕'

금봉미술관(관장 윤관정)은 남도 화맥을 계승하고 전통 수묵화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수묵화 교육을 진행해왔다.

지도강사와 참여 시민들의 작품을 만나는 '필묵(筆墨) 벗하다-세네줄 이야기' 전시회가 4일부터 31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미술관측은 남도 전통문화 강좌 활성화를 위해 전통 수묵화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모집, 수개월간 강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수묵을 기본으로 하는 문인화, 서예, 산수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윤영동, 조창현, 광영주, 김병문 등 수묵화 지도 강사 4명의 작품과 함께 강숙자, 김경희, 김익순, 김종철 등 모두 35명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오픈 행사는 7일 오후 4시 열리는 연계행사도 지도강사들이 참여하는 합작 회화 작품제작 시연도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브리 애니메이션 OST에 빠지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 내한공연... 7일 ACC

스튜디오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OST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특유의 곡 해석과 깊이 있는 선율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있는 재즈 트리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Kazumi Tateishi Trio)의 아홉 번째 내한공연이 오는 7일 오후 5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린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타테이시 카즈미(피아노), 사토 시노부(콘트라베이스), 스즈키 마오(드럼) 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피아노 트리오이다.

이들은 지난 2011~2018년 8년 연속 내한공연 매진 기록을 세우는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재즈 트리오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클래식, 재즈를 만나다'를 주제로 국내 관객과 만난다.

레퍼토리는 쇼팽의 '야상곡 9-2 내림마장조', 엘가의 '사랑의 인사',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 사티의 '난 그대를 원해요' 등이다.

또 '이웃집 토토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의 주제곡과 다양한 재즈 연주를 퍼포먼스와 함께 선보인다.

카즈미 타테이시 트리오의 이번 광주 공연을 시



작으로 청주, 수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한번 더, 또 다시'

성악 앙상블 '친친클래식' 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성악 앙상블 '친친클래식'이 오는 6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두번째 정기연주회를 연다.

공연의 주제는 앙코라(Ancora)로 '한번 더, 또 다시'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다.

이날 무대는 클래식을 기반으로 한 팝,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꾸민다. 레퍼토리는 영화 '사도'의 OST '꽃이 피고 지듯이', '타이타닉' OST 'My heart will go on', 유재하의 '그대 내 품에', 사라 브라이트만의 'Time To Say Goodbye' 등이다. 이 외에도 '꽃이 피고 지듯이', '달의 노래', '첫사랑', '선물', '아름다운 밤', '친구라는건',

'Winter wonderland', 'Notte Stellata'으로 무대를 채운다.

바리톤 이진, 장선근, 조형민, 테너 김태형, 공성준 등이 무대에 오른다.

지난 2014년 창단한 친친클래식은 성악전공자들로 구성됐으며 전국 곳곳의 무대에 올라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 주최 월요콘서트, 서울문화재단 '삼각산청이좋아', 세계청년축제 개막공연,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대회 폐막공연 등의 무대에 섰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Beltone **CES** **BIG INNOVATION**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송년행사'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